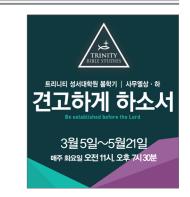


발행처 광림교회 서울 강남구 논현로 175길 49 TEL 2056-5600

www.klmc.net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 파워크리스찬 성극 〈2019 빈 방〉, 13년 만에 재조명 되다

5월 4일(토)~5일(주일) 저녁 7시 30분 BBCH홀에서 공연, 성도들 뜨거운 박수갈채 보내

#### 크리스천의 진정한 의미 깨우쳐준 작품

"요-셉, 마-리-아! 가지 마-세-요! 우리-딥 (집)에 비 바이(방) 있어요. 거짓말 아니에 요." 어눌한 여관집 주인 덕구의 대사다.

파워크리스찬 성극 <2019 빈 방>이 광림 사회봉사관 7층 BBCH홀에서 은혜와 감동 의 물결 속에 지난 5월 4일(토)~5일(주일) 저녁 7시 30분 이틀간의 공연으로 하나님 께 영광을 드렸다. 무대세트, 제작, 조명 셋 업에 이르기까지 옥합을 드린 여인처럼, 시 간과 정성을 드린 스텝들과 배우들의 헌신 이 고스란히 녹아든 작품으로 성극 빈 방은 참석한 새가족, 성도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 주는 작품이 되었다. 이 작품은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를 극화한 것으로, 광림교회에서 13년 만에 다시 재조명하여 무대에 올렸다.

줄거리는 세 목동이 메시야의 탄생 소식을 듣자 환희와 놀람으로 가득한 것으로 시작 한다. 로마 황제의 호적을 하라는 칙령에 따라 만삭인 마리아와 요셉은 고향 베들레 헴으로 가는 여정에 빈 방을 구하러 여관집 을 찾는다.

어눌한 장애인 덕구는 여관집 주인역으로 등장한다. 팀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덕

구는 눈물겨운 대본 연습을 하며 마침내 성 극을 무대에 올린다. 하지만 덕구는 애타 게 방을 구하는 요셉과 마리아를 보고 갑자 기 불쌍한 마음이 든다. 마침내 현실과 연 극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그만 연극대본에 도 없는 대사를 하여 연극을 망치고 만다. "하지-만 아까-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 어요. 우리-집에 방-이 있거든요. 나는 예-수님이 내 방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라고 덕구는 독백한다.

그는 비록 선생님과 팀원들에게 민폐를 끼 치며 연극을 망쳤지만, 하나님은 정말 우리 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것이 하나님의 은 혜임을 알게 해준다. 그리고 "빛을 발하라 주께 영광 돌리리"라는 힘찬 찬양이 무대에 울려퍼지고 커튼콜 장면이 나온다.

#### 마음에 큰 감동받은 성도들

송봉애 권사(21교구)는 "신체적으로는 장 애를 가졌으나 영적으로는 늘 '코람데오'(라 틴어:하나님 앞에)의 삶을 살아가는 덕구 를 통해 나 자신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되 었어요. 예수님이 오늘 내 앞에 어떤 모습 으로 나타나셔도 빈 방이 아니라 안방을 내 어 드리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덕구의 아름 다운 마음을 통해 관습이나 체면보다 중요 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대로 행 하는 것임을 느꼈습니다"라고 말했다.

김길봉 집사(9교구)는 "예수님이 역사하심 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누구나 빈 방을 가 지고 있는데, 그 빈 방을 알지 못하고 방이 없다고 우리는 말합니다"라고 전했다.



김정규 목사(분당서울대병원교회)는 "'주 님을 마음속 깊이 모시고 자신을 주님께 내 어 드린다'는 성탄의 본질적인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감동적인 공연을 해준 〈2019 빈 방〉 배우들과 스텝들에게 감사 드립니다"라고 했다.

타교인 청년인 김선정 성도는 "덕구의 모습 이 크리스천의 진실한 모습이라고 생각했 어요. 미움, 시기, 질투는 크리스천이라면

하지 말아야겠다고 반성했어요"라고 했다. 배우 이재민 성도는 "주님이 차별없이 모 든 이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것을 보며 저 도 주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겠다고 느꼈습니다"라고 했고, 배우 이현빈 성도는 "지난 3개월간의 준비시간을 통해 무대에 서는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 었고, 팀원들에게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 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했다.

연출을 맡은 김상일 집사는 "하나님의 은혜 를 매일 묵상하며 그 말씀을 잊지 않기 위 해 <빈 방>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본 수 정을 6개월 전부터 했는데, 연극의 과정이 인생과도 같기에 시작과 끝에서 하나님과 함께 숨 쉬며 은혜의 향기를 느꼈습니다"라 고 밝혔다.

성극위원회는 20년이 넘는 역사가 있다. 서 명관 장로(성극위원회위원장)는 "성극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기 원하며, 이 시대 기독교문화 선도를 위해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가기를 바랍니다"라며 지속적인 기 도와 후원을 부탁했다.

김옥이 기자 beauty0303@gmail.com

 광림의 강단
 3
 광림 스토리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자
 신천장로 취임예배

하나님을 만나다 4 가족과 함께 트리니티 말씀 암송

믿음의 현장 광림남교회, 전교인 대청소 특집

🔾 복음, 문화와 만나다 요물과 함께 보는 성경과 역사

##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자

하나님께 순종할 때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축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빌립보서 2:12~16)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죽을 날이 언제인지 모를 때 빌립보교 회 성도들에게 간절한 사랑과 소망을 담아 보낸 서신 형식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복음 을 전하러 첫 번째 선교여행을 떠날 때 처 음으로 들린 곳이 '빌립보'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혀 찬송하며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로 인해 옥을 지키던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된 후 그의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리고 처음에 만났던 자주장사 '루디아'의 가 정에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인 빌립보교 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선교

>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열심히 도왔던 공동 체가 빌립보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1장 3절과 5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 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 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 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3~5절)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도왔던 곳, 선교헌금을 모 아 보내주던 곳, 옥중에 갇힌 지금도 중보 기도하며 돕는 교회공동체가 너희임을 내 가 알고 있으니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 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런 빌립 보교회를 위해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보낸 편지에 간절한 마음으로 쓴 내용은 딱 한 마디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 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을 생각해보 십시오. 확연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 렇다면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까요?

#### 첫째, 거룩한 소원을 가진 자가 되어 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명확하게 "그리스도인의 삶 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거룩한 소원을 가 진 자"라고 대답합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빌립보서 2:12~16

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 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 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3.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5.이는 너 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 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12.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6.생명 행하게 하시나니 14.모든 일을 원 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음질이 헛 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 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 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 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하며 하나님 은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 님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거룩 한 소원이 있으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생 의 여정에서 나 자신을 별것 아니라고 생각 하며 자기 비하, 자기연민에 빠져 초라하게 살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소 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9장 16절을 보면 "내가 너를 내 손 바닥에 새겼노라"고 말합니다. 나는 자신에 게 실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 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 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사 랑하시며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두어 이 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이 우리 안에서 그 거룩한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십니다. 그렇기에 내 소원과 하나 님의 소원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 로 깨어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 을 알고 그 소원과 내 소원이 하나가 되는 삶이 될 때,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며 복된 존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 둘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 을 이루어야 합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복종 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경건한 마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체험한 마음입니다.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 루어야 하는데, 그에 앞서 "항상 복종하라" 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복종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두렵고 떨 리는 마음으로 복종하여 타의든 자의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될 때 구원 지향 적인 인생이 되고, 이런 인생이 복된 존재 가 됩니다. 왜 교회공동체 안에 갈등과 분 열과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다 름이 아니라, 말씀에 대하여 피차에 복종함 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0장 2절을 보 십시오.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 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 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이라고 합니다. 그 리고 6절 후반부에 와서는 "네 하나님 여호 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고 알려줍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엄청 난 사랑을 생각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 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될 때, 하나님 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경건함 안에서 구 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런 삶을 사는 사람이 복된 존재입니다.

#### 셋째, 원망과 시비 없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라고 합니다.

본문 14~15절에서 바울은 "모든 일을 원망 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 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 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라고 강조합 니다. 이 말씀은 세상 풍토를 정확하게 지 적합니다. 이 세상 풍토는 '어그러지고, 거 스르는' 것입니다. 그 안에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생활 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 시며 인도해주셨음에도 그들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다 광야 에서 죽게 된 이유는 이 원망과 시비의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이스라엘 백 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존재가 되 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과 시비 없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과 함께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 될 때, 저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 이 있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 라를 바라보며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 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 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목회연구원 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I 02-2056-5730

## 김정석 담임목사 〈제23회 장로부부 영성수련회〉 주제 강연

서울남연회 장로부부 600여 명 참여, 말씀에 은혜받고 순종의 삶 다짐



5월 9일(목) 오전 10시~오후 5시 30분 광림 교회 대예배실에서 장로회 서울남연회연합 회가 주관하는 〈제23회 장로부부 영성수련 회>가 열렸다. 장로부부 600여 명이 참석 한 가운데 은혜롭게 열린 이날 수련회에서

김정석 담임목사는 '르비딤(Rephidim)을 떠 나라'(출 17:1~7)는 제목의 주제 강연을 했 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하나님께서는 이스 라엘 백성의 구원의 축복을 열방 가운데 증 거 하기 위하여 출애굽을 시켰고, 르비딤에 도착하기 전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등 많은 기적을 베풀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은 물이 없어 불평을 토해냈다. 하나님께서 르비딤을 떠나라고 하신 이유는 첫째, 만족 과 안주의식에서 떠나라는 것이다. 르비딤 은 지정학적인 장소의 의미가 아닌 여기까 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의미이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을 문제삼은 것이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 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지만 그들은 의심하는 수준의 믿음이었다. 셋째, 자기중심적 사고

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거 룩성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우리도 회 복되어야 하기에 말씀과 기도의 페달을 밟 으며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참석한 장 로들은 크게 은혜 받았음을 고백하며 다시 새롭게 되어 순종의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

🜙 박영준 장로(뉴스레터위원장)



#### 포토뉴스



총력전도주일

4월 28일 총력전도주일을 맞아 광림교회 에 많은 새가족들이 전도되었다.



2019 부활절 기념 정기전

광림미술인선교회가 주관하는 〈2019부 활절 기념 정기전〉이 4월 21일~5월 26일 까지 장천갤러리에서 열린다.



제18기 솔로몬 아기학교

제18기 솔로몬 아기학교가 4월 6일~5월 18일 매주 토요일 광림사회봉사관 3층 영아부에서 열린다.

#### 담임목사 동정



총력전도주일 4/9~5/4 요르단 성지순례 5/5 유아세례2 강남지방 교역자회의 5/9 제23회 장로부부 영성수련회 제4회 광림가족 한마음 걷기대회

#### 감독 동정



광림북교회 주일예배 설교 4/28 5/5 광림서교회 주일예배 설교 제4회 광림가족 한마음 걷기대회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net

### 〈신천장로 취임예배〉, 5월 19일 주일 저녁 7시 대예배실



금년부터 새로 광림교회를 섬기며 헌신하고 있는 신천장로들의 취임예배가 5월 19일 주 일 저녁 7시 본당 대예배실에서 열린다.

이번에 취임하는 장로들은 지난해 말 기획 위원회의 천거를 받아 당회 구역회에서 3분 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출된 신천장로 8명과 이명장로 2명 등 10명이다.

장로의 직무는 담임목사를 도와 예배, 성례, 행사 집행 등을 보좌하며, 교회 임원들의 활

동을 지도하고 교인들을 심방하며 신앙을 격려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믿음의 선한 증 거로 세상을 화평케 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 해 솔선수범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신천장로는 권정숙(남교회 교육), 김두원 (미가엘성가대장), 김일환(남성성가단장), 김진섭(유아교육), 김홍철(남교회 음악), 서 명관(성극, 중국어예배), 양상식(남교회 남 선교회총연합회장), 한상국(새가족위원회) 등 8명이며, 이명장로는 이기식(군선교위원 장), 장준규(나사렛성가대장) 등 2명이다. 취임예배는 김정석 담임목사의 사회로 진행

되며, 갈릴리성가대가 찬양을 한다. 제17대 서울연회감독을 지낸 김영헌 감독이 설교를 하며, 이어지는 장로취임식에는 문답, 취임 안수, 취임패증정, 선언,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취임장로를 대표하여 인사말을 맡게 된 김 두원 장로는 "주님이 주신 직분에 합당한 언 행을 교회와 사회에 실천하면서, 담임목사 님의 목회방침을 따르며 늘 순종하는 자세 로 나아가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이번에 취 임하는 장로들 모두는 각자 맡은 기관과 부 서에 헌신하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며 항 상 겸손하게 마음을 다잡으며 번성하는 교 회, 화평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앞장서 나가 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취임예배에 앞서 오후 5시부터 애찬관에서 식사가 제공되며, 예배 후에는 신천장로들 이 마련한 기념품을 나누어준다.

メ 이득섭 기자 7sublee@naver.com

### 성경 바람잡이로 제2의 인생 시작한 조혜련 집사



지난 4월 28일 마지막 주일 저녁예배에서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의 특별간증집회가 있 었다. 개그우먼 이성미와 기독연예인들의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을 믿으며 성품이 부드러워진 조혜련 집사 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성형을 한 후 전국을 다니며 그 은혜를 간증하고 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지만 어려움이 많았 다는 조혜련 집사는 9년 전 연예인연합예배 에 참석 했을 때는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 지 못했지만, 지금의 남편을 만나면서 교회 에 나오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찬송 '아 하나님의 은혜로'(310장) 에 큰 은혜를 받고 마음이 바뀌어 지금까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다. 그리고 성경이 어렵고 바빠서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많 다는 생각이 들어 기도할 때, '성경 바람잡이 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SNS를 이용 해 성경을 녹음하여 가족 및 지인들과 서로 나누고 있다.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는 이해 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날마다 지혜의 영 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신다고 했다.

조 집사는 "어머니와 언니, 남동생이 구원을 받고 성경 읽기를 하며 달라지고 있다. 매일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생 명책에 연예인들과 친구, 가족의 이름을 적 고 중보기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조혜련 집사는 신학대학원 역사신학박 사 과정을 밟으며 앞으로도 하나님께 사용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마 19:30)

📩 김혜경 기자 kyung5374@hanmail.net

#### 5월 가정의 달

#### 어버이주일 맞아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어버이날이 있다. 광림교회에서는 5월 12일 어버이 주일을 맞아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행사를 진행한다. 교육국에서는 1,000개의 카네이션을 준비하여 2부와 3부예배에 오시는 70세이상 어르신들께 달아드린다. 중/고등부학생들과 교육국 전도사들도 함께 참여해 어버이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전한다.

또한 여선교회총연합회(총회장 이종옥 권사)에서는 매년 〈어버이 초청 효도잔치〉를 해오고 있다. 올해도 80세이상 다비다 선교회원과 은퇴전도사 모임인 한나선교회 회원들총 32명을 초대하여 예수와(장천홀1층)에서 행사를 진행한다. 이날은 여선교회 총연합회 임원들이 어르신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정존수 기획목사의 설교로 예배를 드린다. 예배후 여선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식사와 선물을 중정하며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사회사업위원회(위원장 신동우 장로)에서는 매주 수요일 새벽에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께 빵과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 5월 8일 어버이날에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추가로 드리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은 평소 150명보다 많은 200여명이 찾아와 선물을 받아갔다.

노령화 시대를 맞아 소외받는 노인은 늘지만 관심은 점차 줄어드는 요즘에 광림교회는 나눔과 섬김을 통해 예수 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고있다.



生生 생생 속회 (37회) 27교구 남성속회

## 장수 속회의 비결, 말씀과 교제를 통한 힐링



10년을 한결같이 토요일 아침마다 함께하는 이들이 있다. 매주 토요일 오전 7시 본당나사렛성전 세미나실에서는 〈27교구 남성속회예배〉가 드려진다. 8명의 속원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지난 10년 동안 결석과 방학없이 진행되었다. 해외출장을 제외하고는지방출장이라면 늦은 밤 혹은 새벽에라도돌아와 함께한다. 한 주간을 일터에서 보내고 토요일 오전 늦잠이 그리울 법도 한데속회가 주는 행복을 따라올 수 없나보다.

#### 토요일 아침, 속회 드리며 주일 준비해

연초가 되면 장재관 권사는 일년 스케줄표 를 작성하여 나누어주고, 속원들은 예배인 도자와 기도, 간식제공자 순서에 따라 예배 를 준비한다. 바쁜 사회생활로 말씀을 잊고 지내다가도 속회예배를 위해 말씀을 펼치고 부족하기에 더 열심히 기도로 준비한다. 또 토요일에 속회를 드리다보니 자연스럽게 주 일을 준비하는 마음이 달라진다며 토요속회 의 장점을 이야기한다.

장수 속회의 비결을 묻자 김영완 권사는 아내들의 헌신과 장 권사의 차 트렁크에 실린 커피포트 세트를 꼽았다. 3~4명 정도가 모였던 초창기에는 돌아가면서 아내들이 간식을 준비했다고 한다. 간식을 싸주니 속회에 빠질 수가 없었고, 늘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따뜻한 물을 챙겨 오는 장 권사의 보이지 않는 수고가 지금의 속회를 있게 해준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다. 현재는 인원수가 많아져 예배 후 교회 주변 식당이나 샌드위치 전문점에서 간단히 식사를

하는데 함께 먹는 기쁨 또한 크다고 한다. 박시종 권사는 남성속회를 '힐링'으로 표현 했다. "비슷한 성향, 비슷한 연령대가 모이 다보니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힘 들었던 일주일을 보내고 속회에 나와 신앙 과 일, 자녀, 여행, 건강 등을 이야기하다 보 면 고민이 더 이상 고민이 아닌 치유 받고 회복되는 느낌을 경험하게 된다고 했다.

혼자 교회에 다니며 조용히 신앙생활을 해 왔다는 오승종 집사는 "속회에 나와 보니 속 원들의 믿음생활과 순종의 모습을 보면 도 전이 되고 배울 게 많습니다. 제 차례가 되 어 예배를 준비하다보면 먼저 은혜 받고 늘 토요일 오전이 기대된다"고 했다.

지난 5월 4일(토) 열린 속회에는 황영재 목사와 이옥순 전도사, 남성속회에 첫발을 내딛는 장재구 성도가 함께 했다. 황 목사는속회는 물론 교구와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에서 헌신을 아끼지 않는 회원 모두를 축복하며 개인의 기도제목을 두고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한마음 걷기대회〉의 취지를 함께 나누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많은 가정의 참여를 독려했다. 서명관 장로(성극위원회 위원장)는 당일 있을 성극'빈 방'공연을 소개하며 지난 3개월 성극을준비하며 흘린 젊은이들의 수고와 땀방울을 알리며 많은 분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소개를 부탁하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다.

📩 이선아 기자 andy8950@naver.com

### 하나님 말씀으로 한 마음 된 가족들, 감사와 기쁨 넘쳐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에서 부부가 함께, 할머니와 손녀들이 은혜롭게 말씀 암송



####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가득하니 행복해

"주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많은 성도들 앞에서 암송할 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9일(화) 저녁 트리니티 성경공부 시간에 부부가최초로 함께 말씀을 암송한 조안형·이길순권사(8교구) 부부의 고백이다. 성경 암송을신청한 후, 틈만 나면 주야로 말씀을 외우며낭독하고, 심지어 잠을 자다가도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다는 에피소드를 전했다.

조 권사는 "아내가 처음에 함께 암송하자고 했을 때 반대했지만 직장에서 신우회를 인



도하다 보니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직원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았으니까요. 말씀 암송은 변화와 능력의 원천입니다. 또한 반복해서 말씀을 외우다 보면 일상에 지친 마음도 말씀으로 치유받고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더군요"라고 말했다.

이 권사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가득 하고 둘이 함께 암송하니 부부가 화합하게 되고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사라졌어요.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면서 한마음이 된 것이 은 혜이자 감사입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4월 23일(화) 저녁 트리니티 성경암송 시간에는 박일순 권사(20교구)와 예쁜 두 외손녀 정시온(6세), 이사라(7세)가 함께 말씀을암송했다. 박 권사가 아이들 키에 맞추어마이크를 대주고 성도들은 함박웃음으로 어린손녀들을 응원하는 모습은 정겹고 아름다운풍경이었다.

박 권사는 "사라는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온 첫 날인데 비행기에서 열심히 외웠대요, 한 달 동안 한국에 머물며 샤이닝스쿨에 다니 고 있어요. 시온이는 샤이닝키즈에 다니며 말씀을 가까이 하니 주기도문을 비롯해 말 씀 암송을 곧잘 합니다"라고 말했다.

아이들에게 추억거리를 만들어 준 것이 기쁘다는 박 권사는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로, 또한 믿음의 다음세대를 이어갈 것을 늘 기도한다고 했다. 또한 아이들은 암송한 말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삼상 30:6)를 놀면서도 입으로 계속 반복한다고 전했다.

사무엘 상·하 말씀을 통해 '견고하게 하소서' 라는 주제로 진행된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성경공부는 12주간의 강의를 끝으로 5월 21 일(화) 종강한다.

소현수 기자 camancow@naver.com

## 어린이와 함께한 풍성한 대축제 〈샤이닝 월드〉

5월 5일, 어린이주일 맞아 밀레니엄공원과 광림사회봉사관 2층에서 다양한 즐길 거리 선사





교회에서 재밌는 행사 열려 기분이 너무 좋아요 5월 5일 어린이주일을 맞이하여 광림교회에서는 미래세대 주인공인 어린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즐길 수 있는 축제인 〈샤이닝 월드〉가 열렸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이렇게 재미있는 행사들을 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을 보낼 거예요." 초등 2부에 다니는 김다희 어린이가 활짝 웃으면서 말했다.

광림교회 교회학교는 매년 어린이주일, 교회 앞 밀레니엄공원과 광림사회봉사관 2층 전체를 테마형 놀이동산으로 꾸며 지역사회 와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섬긴다. 작년부터 시작한 〈샤이닝 월드〉는 올해 'Holy Land' 라는 부제로, 성경을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Bible Zone', 레일기차, 범퍼카, 에어바운스 등의 놀이기구로 구성된 'Play Zone', 소시지, 슬러시, 츄러스, 솜사탕, 팝콘 등의 먹거리 부스로 구성된 'Food Zone'을 운영했다. 특히 'Bible Zone'에서는 오감을 활용해 예수님의 기적과 생애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강명남 교육목사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뛰어 놀 수 있는 교회를 꿈꾼다"면서, "샤이닝월드는 복음전도와 영혼 구원에 초점이 있다. 예배에 참석한 아이들에게 이용쿠폰을 나눠주고, 새가족에게는 프리패스권을 준다. 총력전도주일의 연장선상에서 열린 이번 대축제를 통해 아이들에게 행복하고 친

숙한 광림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 총괄을 맡은 홍민기 전도사는 "매년 어린이주일마다 땀 흘리며 섬기는 교회학교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면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뛰어 노는 모습을 보며 느끼는 보람 때문에 기꺼이 수고해주시는 선생님들의 섬김을 보며 하나님나라를 배운다"고 말했다.

김정석 담임목사도 2부, 3부예배 시간 유아와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어린이주일을 맞아 가정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소중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믿음과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하는부모가 되길 소망한다"고 권면했다.

유병권 기자 ybkpower@empas.com

### 스마트 미디어시대 자녀를 성공으로 이끄는 부모코칭

5월 12일 주일, 광림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 B홀에서



젊은 가정들이 모이는 청장년부에서는 매월 둘째 주 특별한 세미나를 엽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비전 아래 '일터, 가정, 자녀, 복음' 등을 주제로 서로 배우며 가르치는 모임입니다. 특별히 이번 강의는 '(사)놀이미디어센터'의 유성희 팀장을 모시고, '스마트미디어시대 자녀를 성공으로 이끄는 부모코칭(부제:보는 것이 영성이다)란 주제를 다룹니다.

영유아기 시기에 무분별하게 미디어에 노출되다보면 미디어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피할 수 없습니다. 강의의 말씀 본문은 '모든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

켜라!'(잠 4:23)입니다. 견물생심(見物生心) 이란 말과 무엇을 보면 마음에 심상(心想) 이 남습니다. 미디어를 접하면 마음이 미디어가 말하는 바에 빼앗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눈과 귀가 미디어를 향해 있는 아이들은 부모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을 보면, 부모와 자녀 관계가좋은 아이는 성공하는 모든 DNA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는 비결은 자녀들의 시선이 부모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미디어교육의 원칙 중 하나는 '가능한늦은 나이에 가능한 적게 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3절처럼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가정을 관계의 기쁨이풀어지는 장소로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물어지는 상소로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중얼거리며 놀지 않는 아이는 사고하는 뇌 발달 곧 입체적(Chiasm) 사고발달이 떨어집 니다. 일명 '팝콘 브레인((popcom brain)'이 라 하여 뇌가 자극적이고 빠른 정보에는 반 응하지만, 현실에서 접하는 일상적이고 약 한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는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는 비디오증후군과 ADHD 과잉 행동장애, 조절장애, 품행장애의 주요 원인 이 됩니다. 그럼 스마트폰을 어떻게 다루도 록 해야 할까요? 시각정보를 인식하는 곳은 후두엽으로, 영상자극은 전두엽을 자극하지 못합니다. 영상미디어는 듣기 집중력과 읽 기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대안 교육으로 잘 알려진 발도르프 초등학교 학생들은 구 글검색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좋은 책을 읽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데 더 가치를 둔 다는 취지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다룸에 있어 '절제력'을 코칭해야 합니다. 흔히 중독에 대해 오해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중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독의 의미는 묶여 있고, 매여 있는 것입니다. 절제력을 기르기 위해 정기적으로 가정에서 미디어금식을 도전하는 것은 유익합니다. 심심하다고 걱정이 될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추구하며 진정한 기쁨의 근원을 누리는 것이 대안입니다. 말라기2장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경건한자녀,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를 원하십니다.

〈스마트 미디어시대 자녀를 성공으로 이끄는 부모코칭〉 ㅂ

일시 : 5월 12일 주일 오후 1시 10분 장소 : 광림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 B홀

📩 박상익 전도사(청장년부)

#### 신앙 간증

#### 가로수길 땅 밟기 기도 구원의 '빛'을 비추다

가로수길 선교팀 장수민입니다. 가로수 길 선교팀에 들어오게 된 것은 사역을 하나 해야겠다는 결심이 들 무렵 팀장의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구 카페예배 시절, 꽤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팀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시작한다고했습니다. 팀원들이 다 함께 기도하며 팀이름과 방향성을 구하기로 하면서 가로수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를 처음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밤, 가로수길 선교팀의 주제 인 '빛'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며 〈가로수 길 땅 밟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 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빛이라고 여기지 만, 가로수길 땅은 각종 조명과 간판들로 빛나고 있었고, 가로수길을 지나가는 복 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미 충분히 행복해 보이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해야 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더불어 '이 땅에는 저런 조명과 같은 빛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빛이 아 님을 선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 하면서 이 사역이 정말 꼭 필요한 사역임 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가로수길 선교팀에 들어온 지 이제 1년이다 되어갑니다. 두 번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더욱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고,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시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에 이어 가로수길에 위치해 있는 카페에서 〈쉐키나 워십〉과 함께 복음메시지를 품은 음악 공연을 준비했고, 홍보를 위해 헬륨풍선을 이용했습니다. 또한 다육이 만들기, 디퓨저 만들기, 포토존, 편지쓰기와 같은 다양한 행사를 통해충력전도를 맞아 전도대상자를 초청할수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많은 인원이 오지 않더라도 연연해하지 말자' 하고 다짐했는데, 정말 많은 이들이 공연을 보러 왔습니다. 광림의 청년들이 아닌 헬륨풍선을 받고 그 자리에 오게 된 많은 이들을보며, 또 계속 비가 오다가 사역 시간이되면 그치는 날씨를 보며 하나님의 세세한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 참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께서 함께하심을 신뢰하며 가로수길로 나 아가는 가로수길 선교팀이 되겠습니다.



➡ 장수민 성도(청년부)

KWANGLIM NEWSLETTER **믿음의 현장** 및 2019년 5월 12일 주일 제787호

#### 요즘 청년들은 숨이 필요한 세대

#### - 목회현장 -



유용찬 목사(청년부)

한 장로님과 저녁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평소 청년들에 대해 관심이 많으셨다는 장로님은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의 청년들은 어떤 세대들인가요?" 청년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 중 하나였지만 가장 어려운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장로님은 어제 읽으셨다는 신 문 사설의 이야기를 건네셨습니다.

"신문을 보니 요즘 애들은 규정할 수 없는 세대들이라고 합니다. 10년 넘게 먹던 신 라면과 진라면 중 청년들이 더 선호하는 라면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진라면입니 다. 우리는 궁금한 게 있으면 인터넷 검색 창에서 검색하지만, 요즘 애들은 유투브 를 찾아봅니다. 기성세대가 말하면 바로 검색을 해서 펙트 체크를 합니다. 요즘 청 년들은 너무 빠르고 종잡을 수 없습니다." 장로님의 시각이 매우 정확했습니다.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보면 지금의 세대를 세 단어로 정의하는데, 첫째, 간단 함, 줄임말을 심하게 사용하며 길게 설명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둘째, 재미, 이전 세대가 삶의 목적을 추구했다면 지금 세 대는 삶의 유희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저 녁이 있는 직장을 원합니다. 셋째, 솔직 함, 말한 것을 행동으로 증명할 때 "스웩 있다"며 멋지고 존중합니다.

종잡을 수 없는 세대이지만 요즘 청년들이 갖는 공통적인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왜?"입니다. "왜 공부할까? 왜 결혼해야 할까?" 그런데 그 질문의 근본적 물음은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야할까?"라는 존재론적 물음입니다. 점점 사는 게 불안하니 안정을 쫓으며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시스템을 거부합니다.

우연히 책장을 정리하다 2009년 학원복음화협의회에서 만든 자료집을 보았습니다. 제목이 "청년들이 교회를 왜 떠나는가"였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같은 고민을 합니다. 불안을 이기기위해 바쁘게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필요한건 '하나님의 영'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의 숨이 들어간 자를 생령,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5장13절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하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숨쉬는 사람은 소망이 넘쳐 흐릅니다. 숨쉬기 어려운 이 때, 숨을 쉽시다. 지금은 숨을 쉬어야할 때입니다.

## 〈부활절 맞이 전교인 대청소〉 기쁨과 은혜로

- 광림남교회 -



2019년 광림남교회 남선교회 사업 계획으로, 헌신과 봉사 정신 아래 전교인이 참여하는 〈부활절 맞이 대청소〉를 기획하고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주님이 포근한 날씨를 주심에 도 불구하고, 대청소 날인지 모르고 꿀잠을 자고 있던 아침에 '카톡 카톡' 소리에 눈을 떠서 정신없이 청소 복장을 하고 교회에 도착하여 보니, 많은 성도들이 준비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피곤하다는 게으름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굳이 나까지 참여하지 않아도 되겠지' 하는부끄러운 마음을 추스르고 나온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열심히 청소 준비를 하고 계신 장로님들부터 아이들과 같이 나온 청장년부 젊은 가정들, 남선교회와 여선교회 회원들까지 참여한 것을 보고 저의 게으른 마음을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청소해야 하는 일들 중 우선 제일 급한 것은 10여 년 넘게 쌓아 놓은 기계실의 창고 정리였습니다. 창고에는 그동안 먼지가 가 득한 의자와 식탁, 고장난 모니터와 각종 부품부터 행사용 소품들까지 쓸모 있는 물 건과 쓰레기에 가까운 물건들까지 밖으로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동안의 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과 피곤함이 몰려 왔지만, 하나님이 함 께하시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함께 닦 고 나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우리 들은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그 많은 물건들을 잘 정리했습니다.

형제들 중 권사님들은 교회 곳곳에 잡초 제 거를 위해 호미를 들고 다녔고, 청장년부와 청년부 성도들은 주차장 청소를 하며 먼지 를 뒤집어쓰고 땀 흘렸습니다. 또 남선교회 회원들은 창고에 무거운 것을 들고 나르느



라 애를 많이 썼습니다.

마리아선교회 회원들은 애찬관 의자를 닦으며 옷에 세재가 묻어 얼룩진 것도 모르고 열심히 닦았습니다. 또 다른 여선교회 회원들은 애찬관에서 수고하는 형제들을 위해 맛있는 잔치국수와 김밥 등을 만들며 땀을흘렀습니다. 이외에도 세 분의 사모님들과 몇몇의 어린아이들은 물조리개에 물을 담아 꽃망울이 피어오르는 꽃나무에 물을 주었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교회 대청소를 하며 피곤을 느낄 수도 있을 만큼 힘든 사역이었지만,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면 함께하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행사가 된다는 것을 새삼 크 게 느꼈습니다. 고귀한 헌신과 봉사에 앞장 선 광림남교회 형제자매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윤기황 권사 (광림남교회 남선교회)

### 마리아선교회를 굳건하게 세운 '해물파전 500장'

- 광림서교회-



#### 30~40대 젊은 성도들, 광림서교회의 활력소

해물파전 500장, 지난 4월 선교바자회에서 광림서교회 마리아선교회가 판매한 파전의 개수다. 새벽 3시부터 반죽을 준비하고 회사에 출근한 회원, 반죽과 집기 등을 준비해 차가 막히기 전 본당 바자회장에 세팅해주고 일터로 향한 회원, 아이들을 유치원과 학교에 보내고 온종일 파전을 부친 회원들…. 직장맘이 대부분인 선교회원들은 첫 번째 주어진 임무 수행을 위해 첩보전을 방불케하는 헌신을 아끼지 않았다.

올 초 광림서교회에 30~40대 젊은 마리아선 교회가 처음 세워졌다. 10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선교회는 몇 달이 채 안 되어 교회의 활력소로 차세대 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

당할 채비를 갖추어가고 있다. 초대 마리아 선교 회장을 맡게 된 장희영 집사는 에스더 선교회원인 자신을 마리아회장으로 세운 하 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다른 에스더, 루디아 선교회 회원들과 함께 새벽마다 마리아선교 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집사님, 제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회원명부를 받아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 전화 심방을 하는 장 집사에게 회원 모두는 약속이나 한 듯 같은 대답을 했다. 직장과 육아, 임신, 출산 등으로 생의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는 이들이었지만, 주님이 우선인 회원들을 보며 믿음의 다음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느껴졌다고 한다. 또 목사님을 따라 회원 가정을 심방했을 때는 젊은 나이

임에도 너무도 예쁜 믿음을 보며 은혜와 도 전이 되었고, 본이 될 수 있도록 책임감 또 한 더욱 크게 느껴졌다고 고백한다.

#### 새신자와 함께 향초 만들며 사랑 충전

지난 4월 29일(월) 안혜정 집사의 공방에서는 캔들 공예 강좌가 있었다. 총력전도주일을 보내고 초청된 새신자들과 선교회원들이함께 개성 있는 향과 디자인의 향초를 만들며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안 집사는 "저희 마리아선교회가 주님 안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더욱 사랑으로 중보하는 선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통해 회원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어 행복했다"고 했다. 이날 만든 캔들 작품은 현재 광림서교회 성전 입구에전시되어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고 있다.

또 마리아선교회에서는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마리아 자녀를 위한 기도회〉를 준비중에 있다. 얼마 전 서교회 교회학교 어린이가 50명을 넘어섰다. 마리아선교회원들이 믿음의 어머니로 든든히 섰을 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설 수 있다. 이영규 목사는 "마리아선교회원들의 헌신에 감사하며 광림서교회가 믿음의 다음세대를 세워나가는 제단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선아 기자 andy8950@naver.com

## 소외된 사람들에게 향기로 예수님을 전하다

하주연 집사(16교구), 힘든 일 겪은 뒤 용서와 사랑으로 전도에 힘써



#### 늘 웃음 가득한 얼굴로 헌신

쥬얼리 디자이너가 향기 집사가 됐다. 조금 은 화려했던 일터에서 이젠 예수의 향기를 전하는 아로마 테라피스트로 삶의 주인을 바꿨다. 행복한 향기 집사로 소외된 곳, 미 자립 어린이들, 미혼모 시설 등을 찾아 필요 한 것으로 위로하고 아픔을 함께하며 예수 님을 전한다. 자신의 힘든 상황을 주님과 함 께 극복하며 늘 웃음 가득한 얼굴로 기쁘게 헌신하는 하주연 집사(16교구)가 간증을 전 한다.

#### 성도들이 왜 향기 집사라고 부르는지요.

제가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할 때 권사님, 집 사님들에게 자주 아로마 나눔을 했는데 좋 아하시며 저를 향기 집사라고 많이 불러주 셨어요. 먼저 말하는 것이 쑥스러운데, 향기 한 방울에 모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세요. 어디를 가든 제가 먼저 광림교회 하주연 집 사라고 소개하며 향기 한 방울을 전하면 모 두들 저를 '향기 집사님'이라고 하면서 먼저 다가오네요.

#### 좋은 향기로 무엇을 하는지요.

좋은 향기는 멀리 간다고 해요. 향기로 베이 비 박스, 고아원, 양로원에 다니면서 봉사도 하지만 전도할 때도 많이 사용해요. 아로마 향으로 손 맛사지를 하며 눈을 보고 이야기 를 들어주면,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의 이야 기를 해요. 그 때 예수님도 함께 전해요. 이 웃이 이사 오는 날에는 물과 간식거리를 가 지고 찾아가 관계성을 맺기도 하고, 제가 만 든 전도용품으로 교구 전도 때 사용하는 기 쁨도 커요.

호스피스 교육을 받고 환자들에게 향기 맛 사지를 하고, 샤이닝스쿨, 사랑부 봉사와 경 기도 광주 지역 홈 케어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과 함께 제게 주신 달란트로 쥬 얼리 소품을 만들기도 해요.

#### 삶의 방향이 바뀐 계기가 있는지요.

하나뿐인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폭력을 심하게 3번이나 당했어요. 그 때 힘 든 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기도하며 '감사 합니다' '사랑 합니다'를 노트에 3만 번 이상 을 썼어요. 마음이 아픈 아들을 위해 기도하 며 저 또한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어요. 하지 만 가해자인 아이를 용서하고 나니 고난이 축복이더군요. 아들 사건으로 인해 인격적 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요즘은 감사 뿐입니다.

#### 어떤 헌신을 기도하고 있나요.

힘든 상황을 잘 견디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신 것에 감사해요. 제가 나 갈 길을 보여주신대로 위로하고, 봉사하며 먼저 손을 내밀어 보듬을 수 있기를 원해요. 내가 변하면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변 한 제 모습에 친구들도 주님을 믿게 되었어 요. 주신 많은 달란트로 미혼모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지속적인 연계 역할을 하며 힘 있게 예수님을 전하며 겸손하게 헌신 봉 사하고 싶어요. 아들 채민이가 작곡과 노래 를 하는데, 다음세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 는 하나님의 증인되길 소망하며, 아들과 전 도 여행을 하는 것이 제 큰 비전입니다.



\* 광림교회 홈페이지(http://klmc.net) 광림 방송 '광림인'에서도 하주연 집사의 향기 이 야기를 들을 수 있다.

📩 이상희 기자 shlh616@naver.com

#### 렛츠 고 페스티벌 간증

### 젊은 가정들을 위한 축제에서 나눈 기쁨

매년 총력전도주일이 되면 청장년부에서 개최되었던 〈렛츠 고 페스티벌〉이 올해 도 열렸습니다. 렛츠 고 페스티벌은 주변 에 믿지 않는 가정을 초대하거나 신앙공 동체가 필요한 젊은 가정을 초청해 음식 을 함께 나누고 실내에서 작은 운동회를 하며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청장년부는 결혼 10년차 이내의 부부가 모이는 공동체인 만큼 신혼부부와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이번 행사는 어른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게임뿐만 아니라 영유아 아이들도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다양한 눈높이에 맞춘 게 임들이 준비되어 모두가 어린 아이의 마 음으로 돌아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 날 처음 청장년 부에 오신 가정들과 오랜만에 뵙는 가정 들이 함께할 수 있어서 더 큰 기쁨과 감사 함이 느껴졌습니다.



이 날을 준비하기 위해 2주 동안 밤 9시 가 되면 카톡방에는 한결같은 기도 알림 이 울렸습니다. 속별로 돌아가며 찬양 한 곡과 공동 기도제목을 올리고 참여하게 될 가정들과 준비과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기도 알람이 울리는 동시에 아이 의 잠투정 알림이 울리기도 하고 나의 의 지 하나만으로 이 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갖가지 상황들이 가정에서 벌어집니다. 하지만 가난한 손길의 드림도 기뻐 받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이미 지쳐있 는 마음일지라도, 드리기엔 너무 적은 시 간이라 느껴질지라도 어떻게든 기도의 제 목을 함께 붙들려는 가정들의 모습이 서 로에게 격려와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 으면 연합할 수 없는 서로 다른 개인이 만 나 부부가 되고,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 서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져 가기 시작한 완성되지 않은 가정들입니다. 하지만 여 러 모습을 한 가정들이 서로를 한 마음으 로 챙기고 이 과정들을 격려하며 나아가 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붙드심에 진 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솔샘 집사(청장년부)

###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이로 다시 태어났어요"

5월 5일 주일, 2부와 3부예배에서 총 22명의 유아들이 김정석 담임목사의 집례로 유아세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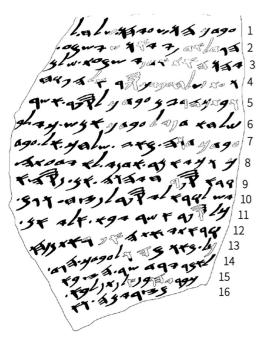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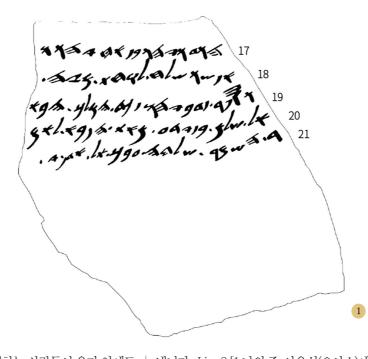
안다인 부:안기범 모:이은정

이스라엘 역사 전문가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 유물과 함께보는 성경과 역사

10 라기스 3번 토기





1935년에서 1938년 사이에 라기스로 들어 가는 성문 입구의 망대에서 깨진 토기에 쓰 여진 편지 글들이 대량으로 발견되었습니 다. 이 편지들은 느부갓네살이 유다와 예루 살렘을 공격하던 시기(605-587BCE)에 긴 급하게 주고 받던 편지들이었어요.(렘 34:6-7) 토기 위에 쓴 스물한 개의 편지들이 발굴 되었는데요. 각각의 편지들은 당시 전쟁의 긴박한 상황에 대해서 참 잘 묘사하고 있습 니다. 라기스 4번 토기 조각(Ostracon 4)에는 함께 연합전선을 펼치면서 싸우고 있는 다 른 요새와 마을에 사람들을 보내었으나 그 곳에 아무도 없었다며 다급히 전장의 상황 을 편지에 남기고 있어요. 아마도 전쟁 중에 전장에서 이탈하여 도망을 갔거나, 이미 그 요새가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점령을 당했다 는 것을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또 같은 토기 조각의 편지글에는 적군의 상황을 재빨리 전달하는 봉화에 대한 내용이나옵니다. 라기스와 대략 17km 떨어진 곳에는 아세가(렘 34:7) 라는 요새가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전장터 부근인데요.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적들의 상황을 아세가에서 라기스로 봉화로 전달해 주어야하는데, 라기스에서 아세가의 봉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글을 쓴 지휘관이편지를 쓰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을 모습이는에 마치 영화처럼 그려집니다.

이 전쟁의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는 예언자 예레미야가 활동하였습니다. 당시의 전쟁 이야기를 전하는 예레미야의 글들과 함께 이 편지들을 읽으면,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 하던 상황을 보다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요. 학자들은 라기스에서 발굴된 이 편지들이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전 즈음에 주고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에는 단지 느부갓네살의 군대와의 물 리적인 충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전쟁 이라는 정치적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유다 안에도 있었기 때문에, 유다의 내부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예언자와 예언자들이 서로 의견을 달리해서 서로 다투었고(렘 27-28), 왕과예언자도 서로 다투었습니다.(렘 36) 그 중에 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요.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참 예언자 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야입 니다.(렘 26:20-23) 우리야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리고 정치적 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유다를 냉철하게 비판했던 모양이예요.

여호야김 왕(609-598년)은 자기의 정치적 인 판단과 달리,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하나 님의 예언자 우리야를 곱게 보지 않았겠지 요. 그래서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 변하는 우리야를 예언자로 존중하지 않고, 정치적인 적이라고 간주하고, 우리야를 죽 이려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야는 이 집트로 도망갔습니다. 우리야가 얼마나 유 다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 만, 미루어 짐작하건데 사람들에게 큰 영향 을 끼치던 예언자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 서 여호야김은 도망간 우리야를 꼭 잡아 죽 여야겠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을 이집트로 보 내서 그를 잡아오게 하는데요. 여호야김이 보낸 사람의 우두머리가 악볼의 아들 엘라 단이었습니다. 기어코 쫓아가서는 우리야를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앞 에 데려가서는 칼로 죽였어요.

이 끔찍한 사건을 유추할만한 성경 밖의 이 야기가 라기스의 편지글에서 발견되었습니 다. 세 번째 편지(Ostracon III)인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번역 참조]

[앞면]

Line 1 당신의 종 호샤야후(호세아)가 [1] 보

냅니다. Line 2 [1 나의 주, 야우쉬(요아스)에 게], (왕이름 요아스가 아님) Line 3 여호와 께서 나의 주에게 평화의 소식을 [2] 들려주 기를 빕니다. Line 4 [2 좋은 소식을,] 이제 [3] 열어 주소서(들어주소서) Line 5 [3 당신 께 바라기는] 당신의 종(호샤야후)의 귀에, Line 6 당신이 어제 저녁에 당신의 신하(편 지를 가져온 사람)를 통해서 당신의 종(호 세아)에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Line 7 당 신의 신하를 통해서 보내운 편지 때문에 당 신의 종(호세아)의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Line 8 왜냐하면, 당신께서 제게, "너는 글자 도 읽지 Line 9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 문입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다른 누군가가 Line 10 [4] 제게 읽어주었다는 말이겠습니까? (보낸 편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Line 11 [4 (당신이) 제게 보낸 모든 편지를 (저 대신)], Line 12 저는 편지를 읽었고, 뿐만 아니라 거듭 반복해서 Line 13 자세하게 읽었습니다.(편지를 대충 읽지 않고 세심한 곳까지 자세하게 살폈습니다.) 당신의 종에게 [5] 전달되었습니다. Line 14 [5 이 말이,] "군대 지휘관 Line 15 엘나탄의 아들 고니아가 [6] 내려갔다. Line 16 [6 이집트로]

[뒷면] Line 17 아히야후(아히야)의 아들 호다야후(호다야)와 Line 18 그의 사람들에 관해서는, 그(고니야)가 그들을 그곳에서 데리고 오라고 보냈다." Line 19 나의 주(요아스)의 신하인 토비야후(도비야)가 [7] 왔습니다. Line 20 [7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야다의아들 샬롬(살룸)에게, (예언자가) 말하기를 Line 21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종이 나의 주인께 보냅니다.

악볼의 아들 엘라단(엘나탄)이 여호야김의 명령을 듣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와 함 께 몇몇의 사람들이 함께 우리야를 체포하 기 위해서 내려가는데, 아마 그 안에 엘나탄 의 아들 고니아도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 라기스에서 발견된 이 편지가 그 당시 를 반영한 것이라면, 이 편지 이전에 아마도 여호야김이 그의 군대 지휘관을 통해서 (아 마도 요아스?) 라기스의 호샤야후에게 엘나 탄과 그의 아들 고니아, 그리고 몇몇의 군인 들이 우리야를 잡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 가니, 그 가는 길 중간에 있는 라기스에서 그 들을 잘 대접하라는 편지를 보냈을 것입니 다. 그 편지를 받은 호샤야후가 어떻게 했는 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 찌되었든 간에 편지를 보낸 지휘관이 기대 하는 만큼의 역할을 해내지 못했던 모양입 니다. 지휘관 야우쉬가 그것에 대해서 질책 하는 편지를 보냈겠지요.("너는 글자도 모르 니?" Line 8-9) 그 편지에 대한 답신이 바로 이 토기 조각에 기록된 편지일지도 모릅니 다. 편지의 말미에는 토비야후가 전한 예언 자의 말,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첨언한 것 으로 보아서, 일종의 정보활동에 대한 보고 서 역할도 함께하지 않았나 싶어요.

읽기에 따라서는 라기스에 있는 지휘관이 야우쉬이고, 다른 지역의 하급 지휘관인 호 샤야후가 보낸 편지로 이 글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는 이 편지의 수신 자와 발신자의 이름만 있을 뿐, 정확하게 이 편지의 문맥만을 가지고 확정을 내릴 수 없기에, 단정지어서 이 토기에 쓰여진 편지가 바로 예레미야 26장의 그 사건을 두고 오간 편지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조심스럽게 예레미야서의 사건과 이 편지의 연관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편지글을 읽으며, 왕의 말과 예언자의 말사이에서 고민하던 전쟁 지휘관들의 모습이 얼핏 보이는 듯하여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하니,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살아간다는 것에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됩니다.

❖ 토기를 그리고 그 해석을 참고한 책들과 이글을 쓰는데 바탕이 된 박사 학위 논문 A.Zammit, "The Lachish Letters: A Reappraisal of the Ostraca Discovered in 1935 and 1938 at Tell−Duweir", unpublished D.Phil dissertation, University of Oxford, 2016.

#### 사진설명

1 라기스 3번 토기조각(Lachish Ostracon): 이 번역은 A.Zammit, "The Lachish Letters: A Reappraisal of the Ostraca Discovered in 1935 and 1938 at Tell-Duweir", unpublished D.Phil dissertation, University of Oxford (2016), 114-32를 참조했다.

➡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편집인 손병규 | 위원장 박영준 | 간사ㆍ편집디자인 이화목 | 후원 남선교회총연합회 실업인선교회 기자 | 김옥이 김재현 김혜경 박신애 백명순 변영혜 소현수 안미영 유병권 이득섭 이상희 이선아 이정순 | 편집 문화홍보실 | 인쇄 현대원색문화사

www.klmc.net에서 e-book 또는 https://www.facebook.com/ kwanglimchurch으로 광림뉴스레터를 볼 수 있습니다